

# 月평균 152만원...비정규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월수입 50만원 이하 프리랜서 14% '수입 양극화 커'  
400만원 이상 5.8% 뿐...“대부분 계약서 작성 안해”

## 프리랜서 실태조사

월요령이 없는 삶 남들 일하는 평일에 놀러 다닐 수 있는 자유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왔을 프리랜서의 삶. 하지만 실제 삶은 비정규직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서울시가 2월부터 4월까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고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확연

했다. 물론 고수익 프리랜서도 존재했다. 응답자의 5.8%는 40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린다고 했다. 300~400만원 미만도 7.0%에 달했다. 하지만 39.0%는 100~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50~100만원이라고 답한 이는 32.6%에 달했다.

또한 월 평균수입이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한 프리랜서 간 수입의 양극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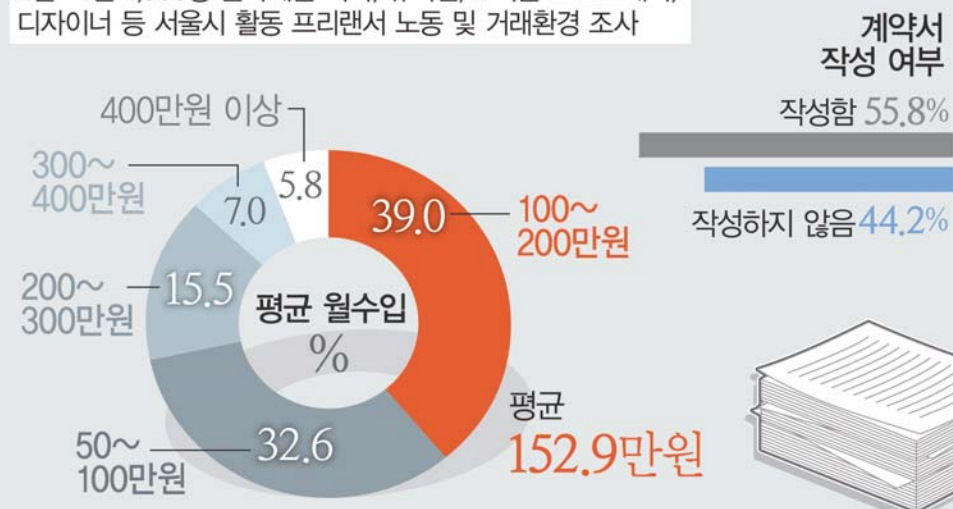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2월~4월 1,000명 문화예술 작가, 뮤지션, IT기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 활동 프리랜서 노동 및 거래환경 조사



## 정기·지속적 일감 여부 및 일감 수

단위: %	평균	경력		
		1~2년 미만	5년 이상	
있다	45.4%	1곳 66.7	60.8	46.2
		2곳 19.4	20.3	28.6
		3곳 6.2	8.9	12.1
		4곳 1.3	3.8	1.1
		5곳 이상 6.4	6.3	12.1
없다	54.6%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에 불과했다.

기준이 없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문화예술분야 민화·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다.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뮤지션 등과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해 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스

## “어디 일거리 없나요?”

2명당 1명 지속적 일감없어 어려움 겪어

프리랜서의 절반은 지속적인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월부터 4월까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7%)을 차지해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의 낮은 수록 일감이 더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22.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12.8%)라는 응답과 '구직 과정 중 직장 취업 중 에 입시로(12.2%) 프리랜서를 선택했다

는 응답 순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고 '부담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를 선호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일자리 시작 동기

취업 등 개인적 사정 22.3%

법률·세무 관련 상담 필요

각종 인권침해 모니터링 강화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문화예술분야 민화·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다.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뮤지션 등과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뉴스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